

시베리아 곰축제 기원신화의 기호학적 분석

宋 孝燮*

A Semiotic Analysis of Siberian Myths Expounding the Origin of the Bear Festival

Hyosup SONG*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analyze four versions of Siberian myths expounding the origin of the Bear Festival by means of the Greimasian semiotic method. They show strong affinity with the ritual in that they contain explicit knowledge about its origin. This paper describes their semantic structure relating to their ritual contexts.

First of all, I describe their surface narrative structure. Thereupon, the syntactic relation of Actants' performance will be described. In these versions, as bear and sister, Anti-Subjects of Deprivation who had represented the value of 'Immanence' are transformed into Sender, who represents the value of 'Transcendence'; they show their productive power generating the expanded ritual narrative beyond the narrow mythic narrative. They can become mediators who connect these two different narratives, as they are ambiguous beings performing both of these contradictory roles.

Second, I describe the semantic structure of myth by means of Semiotic Square consisting of elementary units 'semes'. Their mythical codes are described by tree diagrams consisting of semes, /life/ vs. /death/ and /beneficiary/ vs. /maleficent/. In this case, bear and sister, having opposite semes together, can also mediate two contradictory values.

Third, I describe the semantic structure of expanded ritual narrative which bear and sister create. Such narrative is special in that it seems to be added and responsive to an everyday narrative of bear hunting. Because of the mediating power of bear and sister shown in myth, the Bear Festival comes to be performed under some compulsion. Accordingly, the ritual narrative of festival can be described as an elementary structure showing the modality of 'duty'. Mythicality of the festival is acknowledged to be strengthened by semes /compulsion/ and /prohibition/ inferred from the practical ritual process. This makes it clear that ritual is structurally elicited from myth.

The structural relations shown in this paper will confirm my hypothesis that myth as verbal construct is the narrative that induces ritual founded on action and belief, founded on cognition into its own structure.

Key words : Bear Festival, myth expounding the origin of the Bear Festival, semiotics, actant, seme, semiotic square, mediator

要約：本論考はシベリア地域で採録された「熊神話」の中で「熊祭り」の起源を説明する類型を持つ4種の版本をテキストにしグレマスの意味論的記号学の方法によっ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これらの諸神話は、その内容に「熊祭り」に関する説明が盛り込まれているという点で祭儀との親縁性をダイレクトに表現している。本論考ではこれらの神話の意味論的構造を上記のような祭儀の脈絡と連繫させ記述する。これらの事由により、まず最初にこれら神話の敘事分析を行った。ここでは諸行為の項目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行為が分析されるが、この時、奪われた反主体としての「存在」と「非本質」によって成り立つ「内在」の価値を表象した「熊」あるいは「妹」が「超越」価値を現わす発信者に変身することで、神話の敘事を越える祭儀の敘事を生む力を見せる。「熊」あるいは「妹」は矛

*西江大学校教授 Sogang University

盾的役割を共にする曖昧な存在という点で、このような二つの敘事を繋ぐ仲裁者の機能を果たしている。

한국어초록 : 이 글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채록된 곰신화 가운데 곰축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형을 갖는 4 개의 판본들을 텍스트로 삼아 그레마스의 의미론적 기호학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들 신화들은 그 내용에 곰축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의와의 친연성을 직접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이들 신화의 의미론적 구조를 이러한 제의의 맥락과 연계시켜 기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신화의 서사분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행위항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분석되는데, 이때 피탈의 반주체로서 / 존재 / 와 / 비본질 / 로 이루어진 '내재'의 가치를 표상했던 곰 혹은 누이가 '초월'의 가치를 나타내는 발송자로 변화함으로써, 신화의 서사를 넘어서는 제의의 서사를 생산하는 역량을 보여준다. 곰 혹은 누이는 모순적 역할을 함께 하는 모호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러한 두 개의 서사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서사의 심층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구조는 의소들로 이루어진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석된다. / 삶 / 대 / 죽음 /, / 이로움 / 대 / 해로움 / 의 의소자질을 통해 기원신화의 코드가 기술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곰 혹은 누이는 이러한 대립되는 의소자질을 함께 가짐으로써, 모순되는 가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곰 혹은 누이는 곰축제라는 제의 서사를 생산해내는데, 이러한 서사는 곰사냥이라는 일상적 행위에 덧붙여 그 행위에 대한 대응적 행위로 나타난다. 신화에서 곰 혹은 누이가 행한 중재적 역할로 인해 제의는 일종의 강제성을 띠며, 이에 따라 이러한 서사는 의무의 양태성을 통해 그 본질적 구조가 드러난다. 제의에는 / 강제 / 와 / 금기 / 가 주어지며, 이는 제의가 갖는 뮈토스적 특성을 강화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은 그것이 신화로부터 구조적으로 호명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곰축제 기원신화와 곰축제 간의 이러한 관계는, 언어적 차원으로서의 신화가 행위적 차원으로서 제의와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믿음을 강력하게 호명하는 서사라는 필자의 가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핵심어 : 곰축제, 곰축제 기원신화, 기호학, 행위항, 의소, 기호사각형, 중재자

1. 서론

곰 사냥과 관련된 곰축제는 지리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툰드라 지역과 스텝 지역, 그리고 그 남쪽의 농경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¹⁾, 특히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만주 통구스 지역에서 전승된 곰축제는 그것의 기원을 설명하는 곰신화와 함께 일정한 유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채록된 곰신화 가운데 곰축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몇몇 판본의 신화들은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조금씩 다른 변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각기 다른 판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판본들이 갖는 보편적인 의미론적 구조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그레마스의 의미론을 토대로 이들 신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들 신화는 그 내용에 곰축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신화들보다도 제의와의 친연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곰축제 기원신화의 의미론적 구조가 이러한 제의의 맥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신화에서의 뮈토스와 관련하여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기로 한다. 필자는 신화가 비록 언어로 이루어진 담화체이지만, 다른 담화체들과는 달리 행위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³⁾. 특히 신화에서 발견되는 트릭스터와 같은 모호한 인물이 중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제의와 같은 행위적 차원이나 신화적 사유와 같은 인지적 차원이 신화와 같은 언어적 차원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단지 현실에서의 직시적이거

나 인과론적인 연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곰신화가 전승되는 현장에 곰축제가 열린다거나 곰신화로 인해 곰축제가 열린다는 가설이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된다 하더라도, 곰신화의 담화체에 내재한 뫼토스의 기호학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이 조준하는 바는 바로 곰신화의 담화체를 통해 그것이 곰축제와 관련하여 생성한 담화적 연관성 및 그 필연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화와 제의, 그리고 인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다른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을 세운 바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시베리아 지역의 곰신화와 곰축제를 대상으로 이러한 가설을 재확인하기로 한다.

2. 기원신화의 서사 분석

이 글에서는 시베리아에서 채록된 곰신화 중 곰축제와의 관련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4 개의 판본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가)

두 명의 남매 가운데 누이동생이 곰 굴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곰은 자신의 발을 빨게 하여 그녀를 길렀다. 그녀는 봄에 집으로 돌아와 두 명의 아이 - 새끼곰과 어린아이 - 를 낳았다. 새끼곰은 자신의 형제인 '토르가니' 와 함께 자라다가 숲으로 가버렸다. '토르가니' 는 새끼곰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그의 흔적만을 발견했다. 그는 나무에서 곰이 할퀴 흔적을 발견하고서 곰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곰이 할퀴어 그에게 상처를 냈지만 그는 날카로운 돌로 곰을 죽였다. 곰은 죽으면서 그에게 곰축제인 '우르카착' 을 거행해야 한다고 말했다⁵⁾.

나)

오빠가 어른이 되었을 때, 누이동생이 곰과 혼인하여 두 명의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는 화가 나서 메제 - 곰을 죽여버렸다. 그러자 누이동생은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곰으로 변하여 숲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 오빠는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암곰으로 변신한 누이동생에게 부상을 입혔다. 누이동생은 죽으면서 곰과 오로치족의 화해의식을 오빠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때부터 오로치족은 곰 축제를 거행하였다⁶⁾.

다)

두 명의 형제와 그 누이동생 한 명이 살고 있었다. 누이동생이 꿈 속에서 '숲의 사람' 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로 갔다. 그녀는 '숲의 사람' 과 함께 살면서 아이 - 새끼곰을 낳았다. 어느 날 '숲의 사람'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숲으로 갔을 때 두 명의 형제는 곰 굴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동생 - 암곰을 찢어죽이고 새끼곰을 데리고 돌아와 길렀다. 그 살해된 곰은 '숲의 정령' 에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금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규칙을 준수하면서 거행된 곰축제를 보고난 후 불쾌했던 마음을 풀고 '숲의 정령' 에게 사람들에게 대해 호의적으로 말했다⁷⁾.

라)

옛날에 오빠와 누이동생이 함께 살았다. 누이동생이 곰과 함께 놀았지만, 오빠는 이 사실을 몰랐다.

오빠가 우연히 이 일을 알고서 꿈을 죽여버렸다. 누이동생은 오빠에게 화를 내면서 숲으로 가버렸다. 숲으로 간 누이동생은 암곰으로 변하였다. 그후 암곰은 새끼곰 두 마리를 낳았다. 어느 날 오빠가 사냥을 나갔다가 암곰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때 상처를 입은 암곰이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왜 저를 죽이려 합니까? 저는 당신의 누이동생입니다. 당신이 제 가족을 버기면 저의 가슴 가리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이동생은 죽으면서 오빠에게 곰 고기의 사용을 위한 의례를 일러 주었다⁸⁾.

가) 는 에벤족, 나) 는 오로치족, 다) 는 울치족, 라) 는 우데게족의 신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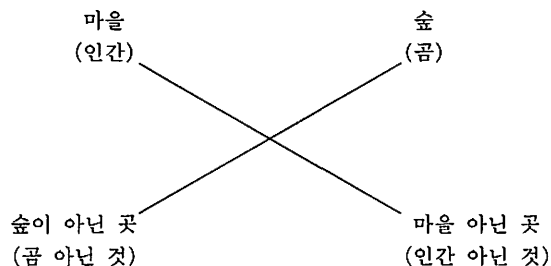
먼저 이들 신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기술해보기로 한다.

1. 누이동생이 곰과 접촉하다.
2. 누이동생이 곰의 아이를 낳다.
3. 누이동생의 남자형제 혹은 누이동생의 자식 (인간) 이 누이동생 혹은 누이동생의 남편 혹은 누이동생이 낳은 곰을 죽이다.
4. 곰이 죽으면서 축제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다.

앞서 제시한 4 개의 판본의 신화에서 추출해낸 이러한 문형들은 이들 곰신화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보여주지만, 이들 판본들 간에 드러나는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⁹⁾. 그러나 이 글은 시베리아 곰축제 기원신화의 일반적인 의미론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세한 변이양상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이들 신화가 보이는 공통된 표층구조를 살피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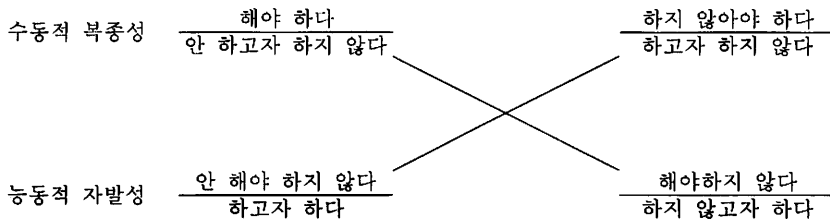
네 개의 판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줄거리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에 의한 일정한 유형의 공간 이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누이동생이 곰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곰이 사는 숲으로 가야하는데, 그레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공간이동은 가치의 교환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발송자와 수령자간에 이루어지는 교환의 구조는, F: 전이 ($S \rightarrow O \rightarrow R$) 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전이는 일종의 장소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전이의 주체가 그 장소와 직시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¹⁰⁾. 여기에서의 대상 (O) 은 누이동생이라 할 수 있으며, 누이동생의 공간의 이동은 마을이 표상하는 가치 즉 인간의 가치와 숲이 표상하는 가치 즉 곰의 가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미의 행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의 행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태의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립구조를 토대로 한다.



[표 1] 공간적 지표에 의한 상태의 기호사각형

이러한 양상은 이들 신화에서 대립적인 가치들 사이의 전이가 일어나며, 이는 주인공의 공간이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동에서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와 대상 간의 이접과 연결과 같은 의미론적 문제들이다. 누이가 곰을 접촉하는 것은 누이가 곰을 욕망하고 이를 통해 대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의 양태발화는 의무의 양태발화와 일치 *conformité* 의 기호학적 관계를 갖는다. 그레마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1).



[표 2] 욕망의 양태발화와 의무의 양태발화의 일치관계

앞서 기술한 네 개의 판본에서 누이동생과 곰의 접촉은 자발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하다. 곰 굴을 찾아갔다거나 (가)), 곰과 놀았다는 것 (라)) 은 능동적 자발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곰이 누이의 발을 빨게 하여 길렀다거나 (가)) '숲의 사람'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숲으로 간 것 (다)) 은 수동적 복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복종성과 능동적 자발성은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에서 연루의 관계를 갖는다. 누이동생은 '해야 했기' 때문에 '안 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안 해야 하지 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는 서로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호사각형에서 적어도 누이라는 주체가 구현하는 양태성은 이중적이며 모호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인물들 즉 곰이나 인간 형제들과는 다른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이라는 대상을 놓고 발송자와 수령자가 전이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말한 바 있다. 발송자와 수령자는 각각 사람과 곰이며, 그것과 직시적인 관계를 갖는 공간이 마을과 숲인데, 이러한 전이는 또한 욕망과 관련되어 있음으로써, 대상의 획득과 상실이라는 변형을 불러일으킨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변형이 획득인가 상실인가 혹은 시련인가 증여인가에 따라, 강탈, 피탈, 귀속, 포기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12). 여기에서 핵심은 행위주체가 상태주체와 일치하는가의 문제이다. 행위주체가 어떤 행위를 통해 스스로 대상을 획득했다면 그것은 강탈이 되고, 어떤 행위를 통해 다른 주체로 하여금 대상을 획득하게 했다면 그것은 귀속이 된다. 앞서의 판본들에서 사람과 곰 사이에 일어나는 변형은 모두 사람과 곰이 적대적 관계에서 누이를 강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대결, 지배, 귀속으로 연결되는 서사발화가 나타난다 13). 이는 욕망의 양태발화를 수반하기도 하는데, 앞서 [표 2]에서 나타난 '능동적 자발성'이 발현되는 과정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주체로서의 누이동생이 보였던 이중적 양태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명백한 욕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뿐이며, 그러한 행위가 충돌하면서 강탈과 피탈이라는 변형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대결은 앞서 [표 1]의 기호사각형에서 보았던 가치의 대립이 서사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형은 결국 인간에 의한 곰의 살해로 마무리된다. 인간은 곰을 지배하게 되고 곰의 목숨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항의 도식으로 나타난다 14).

F 변형 $[(S3=S1) \rightarrow (S1 \cap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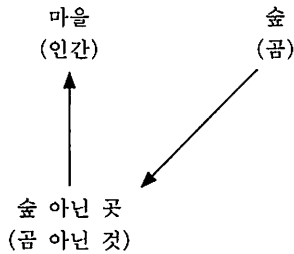
S1= 잠재적 주체로서의 인간

S3= 변형적 주체로서의 인간

O= 대상으로서의 꿈의 목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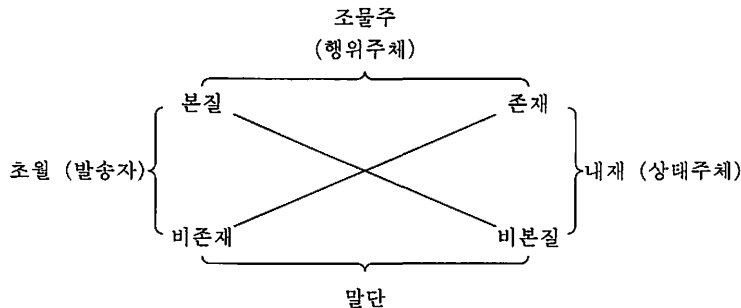
[표 3] 인간과 꿈 사이의 행위항적 관계

이는 꿈 숲으로 지표화되는 꿈의 가치에 대한 마음으로 지표화되는 인간의 가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표 1]의 기호사각형을 다음과 같은 역동적 작용을 드러내는 기호사각형으로 다시 기술해 볼 수 있다.



[표 4] 공간적 지표에 의한 작용의 기호사각형

그러나 꿈축제 기원신화의 판본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서사에 이어 가치의 전이를 드러내는 또다른 서사가 덧붙여짐을 볼 수 있다. 이는 꿈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식의 전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꿈축제 기원'이라는 자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발송자는 누이이거나 꿈인데, 이들은 모두 앞서의 분석에서 대상의 행위항으로 나타났던 존재들이다. 그러나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은 발송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지식의 전달자이면서, 행위를 '하게 하는'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종자의 존재가 갖는 기호학적 위상은 /본질/과 /존재/의 의소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기호사각형을 통해 일종의 메타항으로 나타난다 15).



[표 5] 본질과 존재의 기호사각형으로부터 도출된 메타항

발송자인 꿈 (혹은 누이)는 내재의 가치와 대립되는 초월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발송자는 [표 5]에서 보듯 존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을 체현하는 존재로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행위를 하게 하

는 작위의 양태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양태성에는 두 개의 주체가 위계적으로 설정되는데, 양태주체와 행위주체가 그것이다 16). 다시 말해, 이들 신화는 곰 (혹은 누이) 이라는 발송자가 양태주체로서 행위주체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내재의 가치가 아닌 초월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판본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두 개의 서사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서사에서 곰 (혹은 누이) 은 피탈의 반주체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표 5] 에서의 / 존재 / 와 / 비본질 / 을 나타내는 '내재' 의 가치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곰 (혹은 누이) 은 무엇인가 행위를 하지만, 결국 그러한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됨으로써, 서사에서 가치의 획득에 실패한 비본질적 사건이 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번째 서사에서 이러한 내재적인 상태주체는 초월적인 발송자로 변화한다. 비록 죽음을 당하는 존재이지만, 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발송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이 신화의 서사에서 종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영향력은 신화의 서사를 넘어 지속된다는 점이다. 곰이 발송자로서 초월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곧 그가 서사 내재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곰 (혹은 누이) 이 전해준 정보로 인해 인간의 규칙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그 자체로 또하나의 서사이지만, 신화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서사라고 말할 수 있다. 곰 (혹은 누이) 이 이러한 두 개의 서사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모호한 존재라는 사실은 바로 그가 이러한 두 개의 서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된 판본들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3. 기원신화의 의미론적 분석

앞서의 분석이 일종의 서사에 대한 분석이라면, 이러한 서사의 심층에 존재하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신화의 줄거리에서 발견되는 통합체적인 연결 관계를 떠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의 행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소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의소는 의미를 구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17), 이러한 의소는 늘 동위소 18) 의 체계를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기호사각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기호사각형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본격적인 의소의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다시 말해, 텍스트에 드러나는 어휘소를 중심으로 기호사각형의 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이들이 의소와 맺는 관계를 기술해야만 비로소 신화의 판본들을 구축하는 코드가 기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의 분석에서 두 개의 서사를 잇는 곰 (혹은 누이) 의 중재적 역할에 주목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서사적 역할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맥락에 대한 참조를 필요로 한다. 모든 해석이 맥락에 대한 참조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기호학적인 해석은 이러한 맥락을 규제하는 체계를 설정하여 이것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기술하고자 하며, 이는 결국 신화의 문화적 코드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레마스는 맥락에 대한 정보의 탐구가 어휘소의 형식으로 이야기 안에 나타나는 서사적 요소들의 층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19). 다시 말해 앞서 행위항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행위항에 해당하는 어휘소들 간의 구조가 밝혀졌다면, 바로 그 층위에 맥락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곰 (혹은 누이) 이 발송자 역할을 한다면, 문제는 발송자라는 행위항적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부여받아 서사구조의 한 위치를 차지한 곰 (혹은 누이) 이라는 것이다. 다른 신화라면 발송자가 호랑이일 수도 있었겠지만, 시베리아의 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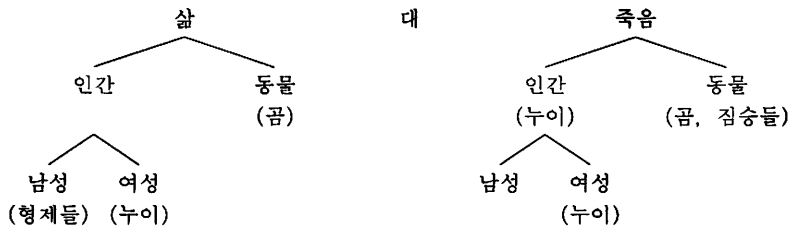
축제 기원 신화에서 곰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서사 자체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서사 모델에 의해 차후적으로 수용된 내용 투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내용은 어휘소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맥락은 이러한 어휘소들을 정의하는 신화적 사전으로 환원될 수 있다²¹⁾. 가령 곰에 대해 어떤 종족에서 어떤 신화적 정의를 부여하는가가 곧 곰축제 기원신화의 맥락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이 충분히 참조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어휘소에서 추출된 의소들의 체계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곰축제 기원 신화의 코드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

곰이라는 어휘소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베리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것이 동물의 최고신으로서 동물을 주재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결정하는 존재라고 믿어지는 점,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곰의 세계로 가서 곰신이 되며, 이러한 동물의 최고신이 곧 자신들의 조상신으로 믿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²²⁾,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사외적인 내용이 신화의 서사에 투여되면서, 의소를 규정하는 의미자질의 추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곰이라는 어휘소에 포함된 여러 의미자질 가운데 곰축제 기원 신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질은 이로움 혹은 해로움이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삶 혹은 죽음의 자질들이다. 살아있는 곰이 누이를 기른 것, 누이가 아이를 낳은 것은 누이를 제외하고는 종족에서 해로운 자질로 간주된다. 그래서 신화의 판본들에서 공통적으로 곰 살해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그러나 죽어가는 곰 (혹은 누이) 이 곰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은 이로운 자질이다. 앞서의 서사분석을 통해 볼 때, 곰 (혹은 누이) 이 갖는 의소자질은 신화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립구조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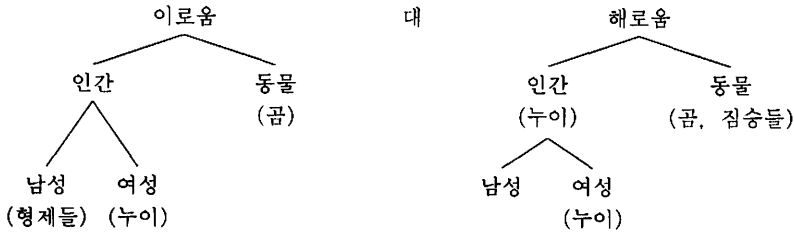
$$\frac{\text{전}}{\text{해로움} + \text{삶}} \simeq \frac{\text{후}}{\text{이로움} + \text{죽음}}$$

[표 6] 곰의 의소 자질에 의한 대립구조

이와 같이 맥락에서의 내용의 투여에 의해 나타난 서사구조는 보다 보편적인 코드를 기술하는 토대가 된다. 그레마스에 따르면, 코드는 적은 수의 의소 범주들로 구성된, 그리고 그것의 조합이 의미소의 형식 안에서 신화적 우주의 주어진 차원들에 속하는 내용 투여의 전체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구조인데²³⁾, 이는 의소와 의미소 그리고 어휘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위계적 관계의 수형도와 같이 나타난다. 곰축제 기원신화의 코드 역시 앞서 추출한 두 가지 동위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형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 살 / 대 / 죽음 / 의 의소 자질을 통해 드러나는 기원신화의 코드



[표 8] / 이로움 / 대 / 해로움 / 의 의소자질을 통해 드러나는 기원신화의 코드

이러한 수형도를 통해 형제들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인간들은 삶의 자질과 이로움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이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목적이 그러한 것이고 그것이 의미자질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인간이면서 누이는 다른 의소자질을 갖는데, / 삶 / 과 함께 / 죽음 / 의 의소자질, / 이로움 / 과 함께 / 해로움 / 의 의소자질도 갖는다. 곰 역시 / 죽음 /, / 해로움 / 의 의소자질을 갖는 다른 짐승들²⁴⁾과는 달리 / 죽음 /, / 해로움 / 의 의소자질뿐 아니라 / 삶 /, / 이로움 / 의 의소자질도 함께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 존재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점에서, 곰축제 기원신화의 코드에서 남성성과 구분되는 여성성의 변별적 자질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곰과 누이는 형제들, 마을로 대표되는 / 삶 / 과 / 이로움 / 의 가치와 짐승들, 숲으로 대표되는 / 죽음 / 과 / 해로움 / 의 가치 사이에서 이들 대립적 가치들을 함께 가짐으로써, 이러한 대립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곰과 누이의 이러한 동질성은 곰과 누이가 육체적인 결합을 하거나, 판본에 따라서는 누이가 곰으로 변신하는 모티프를 통해 드러나며, 이는 인간과 동물 각각의 자질이 갖는 경계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체가 다른 동물이 아닌 곰, 그리고 남성이 아닌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베리아 곰축제 기원 신화의 독특한 문화적 코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4. 곰축제의 기호학적 분석

신화와 제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제시된 바 있지만, 곰축제 기원 신화는 이러한 관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보여준다. 앞서의 분석에서 보았지만, 곰 (혹은 누이) 이라는 중재자는 하나의 서사 안에서 또다른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 서사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축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의 서사에서 죽임을 당한 존재가 다른 서사의 창조자로 거듭나는 것은 신화와 제의 간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화는 언어로 이루어진 뮈토스인데, 이러한 뮈토스는 행위적 차원이나 인지적 차원을 강력하게 호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적 차원은 곰축제로 나타나며, 인지적 차원은 곰축제를 통해 인간이 구현하는 삶에 대한 비전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행위적 차원인 곰축제의 담화가 어떻게 신화에 의해 호명되는지를 살펴보자.

곰축제는 일반적으로 곰을 사냥한 뒤에 거행되기 때문에, 곰사냥은 곰축제의 예비적 단계라 할 수 있다²⁵⁾. 이를 기호학적으로 말하면 곰사냥과 곰축제는 서로 통합체적인 연결관계를 갖는 것이다. 곰사냥을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행위로 한다면, 곰축제는 생존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일상적 행위, 즉 연출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곰사냥과 곰축제의 통합체적 연결관계는 이러한 일상적 행위와 비일상적 행위가 의미론적으로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곰사냥에서부터 곰축제에 이르는 전과정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나타난다. 단순히 곰을 살해하고 소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제약하는 의무와 금기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이야말

로 곰사냥에서 곰축제에 이르는 전체적인 제의적 과정을 갈등을 내포한 서사체로 만드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a) 곰 굴을 발견한 사냥꾼은 굴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굴에서 자고 있는 곰에게 접근하여 부탁을 했다.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음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나무에 표시를 해 두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곰 사냥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여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26).

b) 사냥꾼들은 죽은 곰을 덮어두고 집으로 돌아온 후 사냥에 대해 아무 것도 여자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은 곰에 대해 큰 소리로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 곰 굴을 발견한 사냥꾼은 잠시 휴식한 다음 ‘니막’ (역주: 이웃 가운데, 또는 인척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사냥에 가장 숙련된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사냥꾼은 그의 집에 도착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곰사냥의 결과에 대해 전한 다음 잡은 곰을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나이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그는 이 선물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 거절을 하면 그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 무례한 사람으로, 그리고 가치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27).

c) ‘니막’은 곰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랐다. 가죽을 벗길 때 그는 가죽의 부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소리를 질렀다. 눈 주위의 가죽을 벗기면서 ‘코호-코호’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었고, 귀 주위의 가죽을 벗기면서 짧고 단속적으로 ‘퓨’ 하는 휘파람 소리를 내었고, 사지의 가죽을 벗기면서 단속적으로 ‘느그이’라는 소리를 질렀다. 항문 주위의 가죽을 벗기면서 방귀 소리를 흉내내어 ‘뽕-뽕’ 하는 소리를 내었다. --- (중략) --- 뼈를 자르거나 부수면 안 된다. 관절을 따라 나누어야 한다. 그는 뼈에서 살을 발라내면서 노래했다. “취가 물어뜯는다. 담비가 물어뜯고 또 물어뜯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합창으로 후렴을 따라 불렀다. --- (중략) ---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나이 많은 우리 모두의 누이를 자신의 누이로 생각하자 28).”

d) 모든 곰 고기는 3일 안에 모두 먹어야 한다. 곰 고기는 저장해서는 안 된다 29).

e) 곰 고기 조각을 물어뜯어서는 안 된다. 칼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먹어야 한다. 뼈를 부수어서는 안 된다. 관절을 따라서 뼈를 조심스럽게 나누어야 한다. 먼저 가슴뼈의 고기를 먹었다. ‘니막’은 가슴뼈의 고기를 술에서 접시로 꺼내면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썰매다.” 그는 고기 조각을 천천히 잘라 연장자 순으로 주었다. 몸통 앞부분의 고기는 신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먹었다. 사람들은 혀를 먹을 때 말했다. “이것은 힘들게 호흡할 때 내미는 혀다.” 혀 조각을 먹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연장자부터 두 번 ‘으이으이호-으이으이호’ 하고 목이 쉰 숨소리를 내었다 30).

f) ‘니막’은 곰고기를 소년들에게 주기 전에 곰 지방과 혼합된 그을음으로 그들의 얼굴에 콧수염을 그렸다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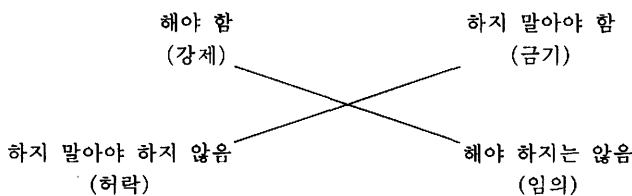
g) 곰고기를 처음으로 먹는 소년들의 입에 자작나무로 만든 작은 고리를 걸어두었다. 그들은 고기 조각을 그것을 통해 입으로 넣어야 했다³²⁾.

h) 새벽에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축제의 주관자인 '니막'의 천막에 남은 남자들은 축제의 마지막 부분, 즉 곰의 두개골과 나머지 뼈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때 여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중략) --- 나무로 특별한 단을 만들어 곰의 모든 뼈와 두개골을 놓았다³³⁾.

i) 먼저 장례 의례인 '안가드익'을 거행하였다. 만약 죽은 곰이 수곰이면 두개골의 눈구멍에는 나무 껍질로 안경을 만들어 씌었고, 콧구멍에는 나무로 만든 귀고리를 달았으며 발목에는 나무로 만든 팔찌를 끼웠다. 만약 암곰이면 귀고리, 안경 이외에 두개골을 나무껍질로 만든 땡기 비슷한 것으로 장식했다. 그리고 목덜미에는 나무껍질로 만든 머리카락을 붙였고, 손목에는 나무로 만든 팔찌를 끼웠으며 발가락뼈에는 나무로 만든 고리를 끼웠다. 사지를 팔찌와 고리로 장식하면서 노래했다. "굴로 굴로" 두개골을 장식할 때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당신을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당신에게 안경을 씌우며 귀고리와 팔찌를 끼운다"와 같이 곰을 먼 여행으로 인도하면서 곰을 장식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모든 뼈는 본래의 순서대로 모가 없으면서 뿔 모양으로 갈라진 막대기로 단에 고정되었다. 수곰을 향해서는 그를 반드시 '에트케' (장인이라는 의미)라고 불렀고, 암곰을 향해서는 '아트카' (장모라는 의미)라고 불렀다³⁴⁾.

곰사냥을 한 뒤, 곰을 먹고, 즐겁게 축제를 즐긴 뒤, 곰에 대한 장례를 거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곰 축제의 전과정은 곰신화에 의해 호명된 또하나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는 신화의 서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서사를 완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신화의 서사에서 인간에 의해 살해당한 곰이 발송자가 되어 새로운 서사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서사에서 살해당한 곰의 죽음이 의례를 통해 완결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신화에서의 등장하는 인간과 곰은 이러한 신화에서 호명된 축제에 참여하는 인간과 또 축제에서 사냥으로 희생된 곰과 등치된다. 신화에 의해 촉발된 축제라는 또하나의 서사는 이와 같이 신화와 일정한 구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신화에 의해 호명된 행위의 서사 즉 축제는 주로 의무의 양태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레마스에 따르면 의무의 양태성은 다음과 같은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난다³⁵⁾.



[표 9] 의무의 양태성의 기호사각형

여기에서 /강제/와 /금기/는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하위계층의 두 항 /허락/과 /임의/의 대립에 비해 훨씬 강하고 뚜렷하다. 이에 따라 상위의 두 항목들의 대립은 서사의 뒤토스적인 특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화가 호명한 제의에서 인간의 행위는 이러한 강력한 뒤토스의 지배를 받

는다. 곰축제는 신화에서 살해된 곰 (혹은 누이)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해야하는' 강제적인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그와 반대되는 즉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대립이기도 하지만, 적극적 의무라는 동질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와 /금기/가 곰축제의 서사에서 어떻게 기호학적으로 실현되는 것일까?

/강제/는 곰축제가 곰사냥에 필수적으로 이어지는 행사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꼭 해야하는 것이다. 곰을 죽이는 사냥행위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데, 여기에 또하나의 필수적인 행위를 덧붙인 것이다. 이는 사냥행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행위라 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신화의 중재적 역할은 대립항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냥행위 역시 이에 대한 대립적 행위를 통해 사냥행위에서 야기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곰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먹는 과정에서 행위 하나하나가 야기시킬 수 있는 갈등을 그때그때 그에 대응하는 행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이것은 신화의 중재적 역할을 실제의 제의적 행위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가령 앞서 c)에서 곰의 가죽을 벗기면서 일정한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하는 것, 특히 곰의 몸통을 분리할 때 "가장 나이 많은 우리 모두의 누이를 자신의 누이로 생각하자"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곰의 가죽을 벗기는 행위가 불러일으킬 갈등을 해소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곰고기를 먹을 때도 반복된다. e)나 f)에서 보듯, 곰고기를 먹으며 일정한 소리를 내거나 소년들에게 어떤 치장을 하게 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는 것은 새로운 메타포를 창조하는 것인데, 가령 곰의 가슴뼈 고기를 먹으며, '이것은 우리의 썰매다'라고 하는 따위의 행위는 물론, 의미없는 반복적인 소리를 내는 것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들 수 있다.

곰의 장례를 행하는 것은 포괄적인 곰의 살해에 대한 대응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곰을 죽이는 행위에 대립되는 살리는 행위를 모의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곰을 먹는 과정에서 분해하여 없애는 행위와 대립되는 곰의 사체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치장행위가 행해지는 것이다. 앞 절의 신화 분석에서 발송자와 수령자 간의 전달행위와 직시적 관계를 갖는 공간 이동 역시 이러한 장례의 행위에 함축되어 있는데, 곰의 살해가 곰을 마을로 가져온 행위라면 이러한 장례는 곰을 다시 숲으로 되돌려 보내는 행위로서 살해행위에 대한 대응적 행위로 실행되는 것이다. 장례에서 죽은 곰에 대한 명명이 이루어지는데, i)에서 보듯, 수곰에게는 장인이라는 뜻의 명칭을 암곰에게는 장모라는 뜻의 명칭을 부여한다. 이것 역시 대응적으로 곰에 대해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인데, 특히 여기에서 처가와 관련된 친족의 명칭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곰이 갖는 여성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곰축제의 서사에서 /금기/는 /강제/와 더불어 뮈토스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여성성과 관련되어 자주 나타난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주체로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의무 양태성의 /강제/와 /금기/의 대립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립에 대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대응관계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남성 역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며, 여성 역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a), b), h)에서 보듯 여성은 일반적으로 제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곰과 여성은 모두 신화에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곰이라는 대상에 대한 제의에서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리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은 오히려 곰처럼 제의의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6).

반드시 여성성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곰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기들이 주어진다. 곰을 잡거나 고기를 나누고 먹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금기들은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행위

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모든 갈등을 그때그때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곰고기 조각을 물어 뜯어서는 안 되고 칼로 조각조각 잘라 먹어야 하는 것은 곰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곰과의 사이에 생겨나게 될 적대적 감정을 순화시키는 일종의 덧붙여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곰축제는 곰신화에서 비롯된 의무에서 생겨난 새로운 서사이며, 이러한 서사는 곰 사냥이라는 일상적 행위에 덧붙여 행해지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응적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대응적 행위를 꼭 심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구조화된 것으로, 일정한 문화적 코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가 강화될수록 그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욕구가 샘솟는다. 축제에서 강제나 금기가 아닌 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즐기는 놀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터너가 말한 리미널리티³⁷⁾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신화에서의 중재적 기능이 축제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축제가 갖는 신화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강제와 금기가 강할수록 이러한 일탈의 욕구도 강화되는데, 곰축제에서의 여러 강제와 금기는 역설적으로 곰축제가 갖는 리미널리티의 증대를 촉발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곰축제 기원신화의 신화성을 강화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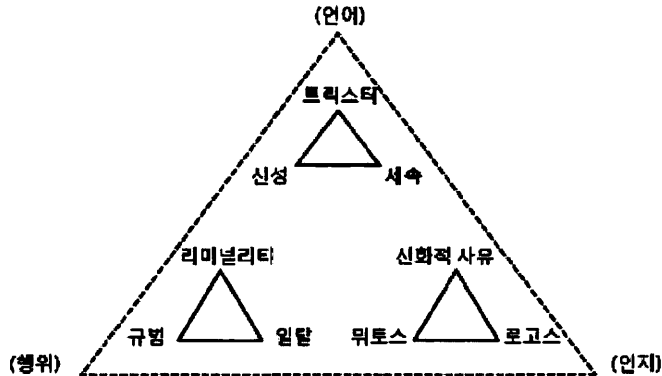
신화와 그것이 호명하는 제의와의 관계를 곰신화 및 곰축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물론 인지적 차원인 믿음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언어와 행위는 인간의 인지적 차원에서 신화적 세계관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곰신화를 전승하거나 곰축제를 행하는 것은 인간이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곰을 죽여서 그것을 식량 삼는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지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행위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결국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신화나 제의는 이러한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의 곰축제 기원신화와 곰축제에 대한 분석에서 이러한 과정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화와 축제에 관한 보편적인 논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신화와 축제에 관련된 논의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찾아진 몇 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보편성을 찾고자 했지만, 보다 깊이있는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컨텍스트를 고려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각각의 종족에서 하나의 어휘소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신화적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 의소를 추출한다면 또다른 새로운 문화코드들이 밝혀질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신화나 축제 텍스트 곳곳에서 드러나는 여러 상징들에 대한 해석 역시 풍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注

1) 박진석, 『시베리아 만주 - 퉁구스족 신화론』 (서울: 지식과교양, 2011), p.151.

2)



송효섭, "뮈토스에서 세미오시스로", 『기호학연구』 제 27 집 (한국기호학회, 2010.6.), p.54.

3) Ibid., pp.49-54.

4) Ibid., pp.40-48.

5) 박진석, op.cit., p.163.

6) Ibid., p.181.

7) Ibid., pp.182-183.

8) Ibid., p.183.

9) 이러한 변이에 대해서는 ibid., pp.197-200 에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10) A.J.Greimas, Du sens (Paris: Seuil, 1970), pp.175-178.

11) A.J.Greimas, Du sens II (Paris: Seuil, 1983), pp.86.

12) Ibid., p.39.

13) Greimas, Du sens, pp.172-173.

14) Ibid., p.37.

15) Anne Hénault,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PUF, 1983), p.70.

16) Greimas, Du sens II, pp.73-74 참조.

17) 음운론에서의 '변별적 자질'의 개념을 의미론으로 변환시켜본다면, 이에 상응하는 '의소'라는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과 소녀에게는 이들을 규정하는 여러 의미자질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모든 공통적인 자질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이들을 구별시켜주는 자질만을 말한다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질을 그레마스는 의소로 규정한다.

A.J.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pp.22-23 참조.

18) 동위소는 발화-담화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집합소들의 연결에서 만들어지는 반복성을 말한다. 적어도 둘 이상의 의소적 형상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통합체가 동위소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맥락이 된다. 가령, '남성성'은 '여성성'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고, 이들에게서 찾아지는 어떤 동질적 요소가 동위소가 된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모두 성과 관련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동위소를 성적 동위소라 부를 수 있다.

A.J.Greimas & Joseph Courtés, Semiotics and Language: An Analytical Dictionary, (trans.) Larry Crist, et a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p.163 참조.

19) Greimas, Du sens, p.192.

20) Ibid., p.193.

21) Ibid.

22) 이정재, 『동북아의 공문화와 공신화』 (서울: 민속원, 1997), p.41.

23) Greimas, Du sens, p.196.

24) 신화의 판본들에서 다른 짐승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신화의 문화코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공과 변별적 관계를 갖는 다른 짐승들을 가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곰이라는 어휘소가 특정 문화에서 갖는 의미론적 위상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25) 박진석, op.cit., p.152.

- 26) Ibid., pp.152-153.
- 27) Ibid., pp.153-154.
- 28) Ibid., p.154.
- 29) Ibid., p.156.
- 30) Ibid., pp.156-157.
- 31) Ibid., p.157.
- 32) Ibid.
- 33) Ibid., p.161.
- 34) Ibid., p.162.
- 35) Greimas, Du sens II, p.77.
- 3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꿈이 숲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조상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찾아지는데, 그렇다면, 꿈 - 여성 - 조상 - 숲으로 연계되는 계열체를 인간 - 남성 - 후손 - 마을로 연계되는 계열체와 대립시켜 구조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의 계열체는 제의의 대상으로 후자의 계열체는 제의의 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37) Victor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PAJ, 1982), p.27.

참고문헌

- 곽진석. 『시베리아 만주 - 통구스족 신화론』, 서울 : 지식과교양, 2011.
- 송효섭. “뮌헨에서 세미오시스로”, 『기호학연구』 27 집, 한국기호학회, 2010.6. pp.37-58.
- 이정재. 『동북아의 꿈문화와 꿈신화』, 서울 : 민속원, 1997.
- Greimas, A.J.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 Greimas, A.J. *Du sens*, Paris: Seuil, 1970.
- Greimas, A.J. *Du sens II*, Paris: Seuil, 1983.
- Greimas, A.J. & Courtés, Joseph. *Semiotics and Language: An Analytical Dictionary*, (trans.) Larry Crist and Daniel Patte and James Lee, Edward McMahon II, Gary Phillips, Michael Rengstorf,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Hénault, Anne.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PUF, 1983.
- Turner, Victor.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PAJ, 1982.